

러브 코소보

이성민, 장혜경, 은지, 새일 선교사 선교 소식

코소보를 위한 기도제목

10월 6일에 총선이 치뤄졌는데, 이번에 총선 결과는 새로운 당이 정권을 잡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 정당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번 투표 결과가 코소보의 발전과 국민들이 평안과 소망 가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 기도제목

1. "풍성한 삶" 교회 신자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2.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3. 은지가 11월 말에 있는 독일어 평가 시험(B1)을 잘 준비하여 합격하도록
4. 교회가 물질로 섬기고 있는 현직인 사역자 쉬켈젠과 바르될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도록
5. 이선교사가 피곤하지 않고, 장선교사의 고관절 통증이 없어지도록

연락처

- smleekosova@yahoo.com
- 070-8246-1434
- +383-44-334420(코소보)
- 카톡ID: samlee1016
- GMP: 02-337-7191

얼마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코소보 알바니아인이 스위스에 30만, 독일에 45만 정도가 산다고 한다. 이 숫자는 정식 비자를 받은 사람들을 집계한 것일텐데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코소보 인들이 유럽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년에 한번은 자신의 고국인 코소보를 방문하기 위해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한다. 특히 여름에 이들의 방문이 집중되는데, 이 시기에 코소보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과 차를 볼 수 있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이 차를 타고 고국을 방문하다보니 생기는 현상인데, 문제는 코소보로 들어오는 국경에 심한 정체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7-8시간을 기다리는 날도 많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정체가 매년 일어난다는 것이고 해마다 국경 통과를 위해 기다림의 싸움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 오는 사람들은 매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10-20시간 이상의 장거리 운전과 국경에서의 오랜 기다림을 극복하게 하는 코소보 사람들의 가족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그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최근 교회 야외 예배를 통해 가을을 느낄 수 있었는데, 동역자님이 계신 곳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풍요로운 가을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저희 가족의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장경두 목사님 성경 세미나

2018년에 저희가 안식년이어서 세미나를 하지 못했지만 올 해 다시 장경두 목사님의 성경 세미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했고 예배소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오신 현지인 신자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강건하게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건강과 상황이 허락되신다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셔서 모두들 감사해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셔서 이곳 신자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겔띠 가족 전도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 ‘겔띠’는 아버지가 회교 사원의 총무격인데, 부모의 동의하에 아이들 모임과 주일 모임에 성실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겔띠’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는 자기 부모님도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는 말을 해서, 같이 만나 복음을 전했더니 부부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겔띠’의 할아버지는 회교 사원 사제였다는데,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혜롭게 이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린디따 전도

‘린디따’는 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 도장에 왔다가 저희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고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편의 오랜 외도로 9년의 결혼이 파국을 맞았고 현재 아이 양육권 분쟁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린디따가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캠프

지난 7월 20일부터 미국의 빌립보 교회 팀과 함께 어린이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팀 원 중에 한 살된 자녀와 오신 분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모임의 꽃 같은 역할을 해 주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방문 팀이 준 은혜는 결혼 전에 왔다가 결혼 하여 남편과 함께 온 두 부부가 있어서 더욱 감사하였습니다. 신자들은 이들이 얼마나 코소보를 사랑하는 지를 피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캠프 때 왔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토요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포 되는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 이야기

은지가 올해 말에 독일어 평가 시험(B1)을 치를 예정입니다. 나중에 독일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은지로서는 꼭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요즘 독일어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준비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일이는 6학년을 시작했는데, 학년이 바뀌면서 학교 위치도 바뀌어 누나와 같은 학교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 은지는 선생님들의 새일이에 대한 평가하는 말도 듣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선생님 한 분이 새일이가 공부시간에 집중도 잘 하고 뒤도 보지도 않는다면 칭찬을 했다는 말을 집에 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던 새일이의 반응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내 뒤에는 아무도 없어서 볼 것도 없어.” 새일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믿음 성장과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 평생을 휠체어 생활을 하던 아들의 죽음을 당한 티나를 만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나가면 모두에게 은혜를 입었다. 물건을 사면 할인 혜택이 있었고, 식당에서도 그 아이 덕분에 공짜 밥을 먹는 경우가 있었다. 그 아이가 지금까지 나를 먹여살렸고 그 아이가 떠났는데도 그 아이로 인해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병약했던 그 아들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돌봄을 받아 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티나의 말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한 자, 약한 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임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희생으로 우리가 누리는 부요함이 크고 놀라운 것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동역자님께서도 주님이 주신 이 부요함 가운데 이번 가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다음 소식을 전할 때까지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2019년 10월
이성민, 장혜경, 은지, 새일 올림